

월요논단



김성은 제주국제관계대사·전 뭉바이 총영사

인도(印度)알기 4 : 없는 종교가 없는 나라, 인도

인도는 철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다. 이로써 인도 내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를 낳았고 이슬람, 조로아스터교(배화교), 유대교, 가톨릭, 성공회와 같은 많은 외래 종교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인도에는 없는 종교가 없을 정도이다.

힌두교에는 브라흐마(창조), 비슈누(유지), 시바(파괴) 3신 이외에도 3억3000만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인도를 '수천의 종교와 200만 신들의 나라'라고 표현했다. 그 정도로 인도에는 신들이 많다.

인도의 불교는 라닥과 마하라쉬트라주(州)에서 강하다. 마하라쉬트라주의 10%, 1300만명이 불교도인데, 이는 B. R. Ambedkar의 영향이며 지금도 Ambedkar 탄생일에 매년 수십만 명이 불교로 개종한다. 한때 인도 전역에 번성했던 불교가 쇠퇴한 가장 큰 이유는 힌두교가 부처를 비슈누의 아바타(Avatar)인 크리슈나의 화신으로 보면서 불교를 포용해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자이나교는 바른 믿음·지식·행동에 의해 해탈이 가능하며, Ahimsa

(불살생), 카르마, 고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간디의 비폭력 사상은 이 '아힘사'에서 나왔다고 한다. 채식을 하며 땅 속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엄격한 금욕생활을 하고, 남자는 전라(全裸)의 모습으로 수행한다.

인도의 이슬람은 무굴제국 시기에 전성기를 누렸으며,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이 그 대표적 건축물이다. 인도 무슬림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그 수가 두 번째로 많다. 필자가 만났던 무슬림들은 정직하고 성실했던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Guru Nanak은 이슬람의 유일신과 힌두교의 윤회를 받아들여 16C에 시크교를 창시했다. 영적인 지도자인 Guru는 1~10대까지는 사람이었고, 11대 구루는 시크교 경전인 Guru Granth Sahib 자체로 1708년 이후 인간 구루는 없다. 편집주

(州)가 분산인 시크교의 신도들은 해외로 많이 이주해 캐나다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장관들을 배출했다. 이들은 웅변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인도 군(軍)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조로아스터교는 인도인들의 포용력을 보여준다. 이슬람교의 박해를 피해 인도로 들어온 이 종교는 인도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Tata Group 가문, 세계적 지휘자 주빈 메타,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퀴의 프레디 머큐리도 파르시(Parsi)이다.

인도에는 종교마다 성지가 존재한다. 아요디아 등 힌두교 7대 성지, 비하르주(州)와 마하라쉬트라 불교 성지, 시크교의 황금사원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를 여행할 때면 이러한 성지들을 한번쯤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사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체 언제 끝나나

제주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완전방제가 언제 이뤄질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2013년 9월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방제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이제 7년째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제주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방제계획을 세워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10월~2020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방제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7차 방제 기간에는 9만9000본의 재선충병 피해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해 1500ha에 예방나무주사와 피해고사목 전량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접지역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압축방제가 실시됩니다.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이 끝이 없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베어낸 소나무만 해도 엄청납니다. 2013년 1차 방제 때 소나무 54만6000그루를 시작으로 2차 51만4000그루 등 2년만에 100만그루 이상 제거됐습니다. 이어 3차 48만5000그루, 4차 28만9000그루, 5차 23만3000그루, 6차 14만3000그루 등 6년동안 227만그루가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전역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 다 잃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도 만만찮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된 사업비가 총 238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과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제주 인구당 1위

제주도가 인구당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취약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현황을 보면 지난 해 인구 1만명 당 피해건수는 제주도가 17건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 등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액은 경기(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 인천(261억원) 순이지만 제주지역도 69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412건에 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04건(피해액 24억9000만원), 2017년 378건(피해액 34억3000만원) 등 매년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합니다. 최근엔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를 사칭, 각종 수수료 명목이나 대환대출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505건 가운데 444건이 이러한 대환사기 형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범죄 조직이 외국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다 돈도 온전히 찾지 못하게 됩니다. 워낙 수법이 교묘해지면 서 누구든지 눈뜨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은 '아는 게 힘'이라고 합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 유형과 이에 따른 예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홍보 강화 등 주기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이 필요함니다. 전국 1위에 오를 만큼 심각한 심각성을 더합니다. 최근엔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를 사칭, 각종 수수료 명목이나 대환대출 등으

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505건 가운데 444건이 이러한 대환사기 형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범죄 조직이 외국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다 돈도 온전히 찾지 못하게 됩니다. 워낙 수법이 교묘해지면 서 누구든지 눈뜨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은 '아는 게 힘'이라고 합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 유형과 이에 따른 예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홍보 강화 등 주기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이 필요함니다. 전국 1위에 오를 만큼 심각한 심각성을 더합니다. 최근엔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를 사칭, 각종 수수료 명목이나 대환대출 등으

열린마당

11월의 제주, 더욱 안전해야 할 때



김나영 서귀포시 서흥동주민센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물러나고 어느덧 입동이 지났다. 11월의 제주는 단풍과 익은, 노랗게 익은 감귤로 아름다움이 더해져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향하고, 농번기가 시작돼 분주해지는 시기다. 가을 행락철과 농번기로 인해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우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제주지역 교통 사망사고가 갈수록 수확철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번기를 맞이해 출근길 새벽과 저녁 퇴근 시간에는 차량 유동량이 많아 보행자, 운전자 모두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농번기 밀감

수송용 화물차량 운전자는 과적·과속, 신호위반 등 사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가 짧아진 만큼 어두운 밤길 운전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 행차는 운전자 눈에 쉽게 될 수 있도록 밝은 옷을 착용하고, 차량 접촉 우려가 있는 인도 경계석 등 도로변에 걸터앉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도 주의해야 한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실내 난방 기구를 자주 찾게 된다. 겨울철 난방용품들은 사용하기 편리한 만큼 자칫 깜박하면 화재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각종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다시 익히는 등 안전수칙들을 잘 지킨다면 올 겨울을 안전하게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의 제주, 우리가 더욱 안전에 신경써야 할 때다. 모두가 분주해지는 시기이지만 '살마'보다는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주변환경을 다 사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며 안전에 취약한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품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한 달간의 감사 일정 돌입

도정 긴장모드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등 한 달간의 감사(?) 시즌을 맞아 긴장모드로 전환.

제주도는 지난 15일 개최된 도의회 제38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2월 16일까지 32일간 회기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병행되며 방어전략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

내년 예산과 도정질문 등은 지난 한해를 중심으로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2016년 이후 업무전반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감사전담부서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건물번호판 이벤트 진행

○...제주시가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집 건물번호판과 함께 찰칵!' 생활 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기 집 앞에 붙어 있는 건물번호

판과 함께 사진을 찍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주시에 제출하면 가능.

제주시 관계자는 "200명을 추첨해 풍량제 쓰레기봉투 20리터 1목음(20매, 1만4000원 상당)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공무원, 방어 소비촉진 동참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최근 방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중방어(1.5~4kg) 440여마리를 구입하며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

이는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된데다 강원도에서도 방어 어장이 형성돼 대량 어획·유통되며 서귀포 특산물인 방어 가격도 동반하락한데 따른 것.

이기용 모슬포어선주협회장은 "공무원들이 방어 소비촉진에 나서 고맙다"며 "이달 21~24일 모슬포항 일원에서 열리는 방어축제 찾아 제철 방어의 진미를 맛보면 한다"고 당부. 이태윤기자

부고 고석봉(부산경남경미공원) 아버지 제주고공 하구(제주경미공원·향년 68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7일 08시 5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18일(월)
▶발인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고 변부진(변호사강석보법률사무소 사무장) 어머니 전주씨 중화(향년 92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7일 12시 4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19일(화) ※ 18일(월) 9분향실, 19일(화) 3분향실
▶발인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 판포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예돈(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아 들 강형근 며느리 이호순
형조
딸 강연숙 사 위 정성두
애숙 오영권
여숙 천경우
은숙 양재호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순하(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아 들 고경호 며느리 김진화
중호
중호 이정은
딸 고정열 사 위 현찬범
경희 양성수
경자 양대운
성자 김명건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 처방(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부 인 진신아
아 들 현충훈 며느리 문순영
지수 이영란
동훈 송순애
딸 현의경 사 위 조성진
의선 고동원

백도라지 분말 판신과 사랑 추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부인 제주고씨 양숙(향년 6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남 편 강덕수
아 들 강현일 (바오로)
딸 강바다 (아네스)
바람 (메로니카)
사 위 노종규 (라파엘)
안준혁 (가브리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순례(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아 들 이화계 며느리 고윤자
승계 고금숙
윤계 송미숙
병계
딸 이덕심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안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펫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